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1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4호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LA성시화운동 가슴 벅찬 시간들
3.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고영일목사)
6. 아름다운 땅 춘천 복음으로 정복하라
7.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담은 교회

이 가을, 감사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국교회여 감사를 회복하자"

많은 교회에는 열심 있는 블평분자들이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열정을 가진 완벽주의자들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숨 가쁘게 처리해 가고 있다. 그들에겐 언제나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나 쉼이 없다. 만약 인생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까지 한다. 이렇게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감사의 절기는 필요하다.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잃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감사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

한 마디로 말해 감사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며 인간의 회복이다.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공동체가 감사가 실종되었다고 상상해보라. 가정과 교회에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될까는 상상에 맡긴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에 인색한지 모른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 상호관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감사의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이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는 기쁨과 평강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했을 때의 감정이 기쁨이요, 마른 목을 축이고 쉼 곁에 앉아 쉼을 얻을 때 주어지는 감정이 평강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기쁨이 있고, 우리 영혼이 침착해지는 안정을 찾게 된다. 이 기쁨과 평강이 하나로 녹아질 때 그 결과는 둘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만족함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도록 지으셨다. 이러한 만족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

만약 추수감사절에 색다른 예배형식, 아름다운 강단 장식, 풍성한 먹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있어야 할 감사가 중심으로부터 표현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만족하며 즐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찾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감사가 있었다. 그러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애굽의 옛 습관인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드리는 습관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불평의 태도를 감사의 태도로 바꾸어야 함을 잊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연되었는가?

오늘 우리도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회복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매일 열 가지 이상 감사의 목록을 찾아서 감사의 습관을 들여 보자.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교회에 감사의 계절이 오게 하자.

[편집부 최영조]



이달의 말씀

하박국 3장 17~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혁신도시의 춘천선정을 위해

낙후된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중심의 도시에 혁신도시가 선정되어 강원도의 곳곳마다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특히 강원도지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시 · 도가 균등하게 만족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 각 기독교기관의 총회를 앞두고

기독교연합회와 교역자연합회 장로교연합회 교경협의회 장로연합회 등 많은 기관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 새로운 성시화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 인도 비하르 경제협력단의 춘천방문

그동안 성시화운동본부와 영천관계를 맺고 있던 인도 비하르주의 경협회장단과 AN칼리지 학장단의 방문이 있었다. 원주의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류종수 시장, 허천 국회의원, 부지사와의 만남과 강원대학교의 포럼 등 중요하고 전략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을 통해 춘천시 ·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창구가 열리고 인도 가나안농군학교의 개설 및 분병의 치학교의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의 길이 열리도록.

강원도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성명서

혁신도시를 어떤 특정 지역에 유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모두가 의심하고 있었다.

① 심의위원 20명중 7명이나 특정대 출신을 배정함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한 점 ② 간선 교통망이나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에 지나친 배점을 주어 그 특정도시에 유리하게 한 점 ③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한 곳에 몰아주어야 한다는 공공연한 발언으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점 등 때문에 모두가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배려 음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 10월 28일부로 선정위원 및 선정원칙을 원점에서 다시 정하시기로 하였는데, 겉모양만 바꾸고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특정도시를 배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아직 버릴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1개 특정도시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몰아줌으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 새로 정해진 선정위원 및 선정원칙을 정하는 과정에 해당 각 시군과의 협의 과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선정위원들의 개별 배점상황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선정 배점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과학적으로 분석 공증 되도록 조치하고, 선정 결과 발표시 그 자료를 공개해 주어야 한다.
1.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분명하고 상세한 입장 표명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춘천의 모든 시민의 열망을 담아 간곡히 기대한다.

2005년 10월 31일 춘천 혁신도시 유치범종교 · 시민단체 협의회

특 집

미 국 L A 성 시 화 운 동

그 가슴 벅찬 시간들 ...

지난 10월 3일에 출국하여 11일에 귀국한 샌프란시스코와 인근도시 산호세, 로스엔젤레스에 걸친 짧은 미국 여행은 혼자 춘천 대표로 가게 되어 무척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필자에겐 너무나 뜻 깊고 벅찬 감격의 시간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의 미 갈보리장로교회에서 한미 합동으로 성시화대회가 열렸는데 김준곤 목사님과 갈보리장로교회 제임즈 G 에머슨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두 분이 함께 손을 들고 축도했다. 한미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좋은감리교회(박찬길 목사)에서 준비한 스킷 드라마의 공연으로 성시화대회는 한층 더 빛났다.

10월 5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산호세 성시화운동 청립대회에서도 김준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대회가 끝난 뒤 열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열개조로 나뉘어서 전 지역교회로 흩어져 간증과 설교를 하여 큰 은혜를 끼쳤는데, 필자는 유명한 버클리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출석하는 버클리중앙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성도들과 함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성시화대회는 LA 대회에 비해 그 규모는 작았지만 그 지역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룬 아주 뜻 깊은 사건이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LA 성시화운동대회' 가 좌석수가 1만석이 넘는 로스앤젤레스 크렌쇼 크리스천센터(흑인 교회)에서 열렸다. 'Holy LA!'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LA)라는 표어를 내걸고, 미국 내 각 도시마다 이 불씨가 번져 세계 각국에 흩어진 도시들 속에까지 한국인들을 통한 성시화운동이 일어나게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지구촌의 정치 · 경제 · 과학 ·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 성시화운동 대회는 지구촌에 성시화의 봄길을 확산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희망을 본다. 첫째로, LA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가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불신자를 포함한 제반 사회의 등정과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기특한 시민운동이었다는 사실이다. 장로교 감리교의 성시운동과 감리교 요한 웨슬리의 홀리 클럽 운동에 기반을 둔 성서적이며 성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현장을 만드는 것에 올바른 방향성과 운동의 가치성을 높여 주었다고 하겠다. 둘째는, 한 두 차례에 끝나는 일차적 운동이 아니라 연속성을 요하는 지구적 성결 운동이므로 점진적인 발전과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청년들과의 연합운동으로 성시화운동의 활기를 띠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회에 앞서 10월 1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있은 1만2천명이 모인 청년집회와의 성공적 협력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앞으로 미주 성시화대회는 영어에도 능하고 시민권자의 위치에 있는 한인 1.5세 2세들이 계주봉을 받아 지고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선다. 넷째로, 흑인, 남미계 등 소수민족의 참여가 단 한인들끼리 만의 집회보다 높은 열기와 특색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이번 셋째 날 집회의 흑인, 남미계 소수민족들의 참가와 흑인 찬양대의 열광적 출연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 일어나 손뼉 치며 환호하게 만들었고 대회장내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밖에 더욱 중요한건 시대의 흐름이다. 현재 한류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도처에 전에 없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월드컵 4강의 축구, 골프 팬들의 환호소리가 높고, 한국 영화 · 드라마 외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한국어에 대한 세계도처에서의 배움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지구촌 사회에 이목을 끌 때 우리가 앞장서 이 지구촌의 인류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할 일중의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한 성시화운동이며 이로 인해 침체되던 교회들이 살아나고 타 민족을 도와 복음화를 실현하는 희망이 보이는 운동으로 자리메김 할 것이다. 사도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을 싣고 갔던 것처럼, 청교도가 미국을 싣고 갔던 것처럼,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을 싣고 갔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100년 전 조국을 떠나 LA에 간 교포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우리 교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제2의 청교도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신앙부흥의 불씨가 되어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음을 확신한다. LA가 한인 이민 100년의 역사와 신앙부흥운동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는 크다. LA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크루세이드 운동이 시작되었고 네비게이토와 CCC, UCLA 캠퍼스 운동 등 미국을 깨운 수많은 영적 운동의 발원지였으나 최근 들어 술과 마약, 범죄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 천사의 도시(로스 엔젤레스)가 악마의 도시로 퇴락하고 있는 가운데 접화된 성시화운동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적절하다 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특별히 산호세 성시화대회에서는 성시화운동 서약서 낭송으로, LA성시화대회에서는 성시화 비전 선언문으로 끝을 맺음으로 그들의 성시화운동에 대한 결의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1972년 춘천의 온 교회가 연합하여 춘천성시화운동 위원회(초대 위원장: 김연호 목사)가 조직되고 한국대학생선교회(당시 대표 김준곤 목사)의 전적인 협력으로 그 해 여름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한 선교대회가 열렸었다. 실내체육관에서 춘천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1만 여명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지 33년, 이제는 전국 28개 시군과 일본의 동경, 히라츠까,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등의 국제적인 외국 도시에서도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의 핵심에 서 계셨던 김연호 목사님이 1981년에 소천하심으로 인해 꺼질 듯 꺼질 것만 같았던 이 운동의 불꽃이 되살아나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필자의 선친이신 그분의 소천 이후 좌절가운데서도 춘천성시화운동의 재건을 위해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르게 조용하면서도 힘 있게 하나님 나라 은등인 성시화운동이 쇠하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에 필자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었다. 1972년의 그 여름, 부모를 따라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들, 그 비저너리(꿈쟁이)들이 지금은 여러 곳에서 성시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필자를 더욱 감격케 했다. 포항에서만 40명이 넘게 참석했고, 또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50명이 넘게 참석했던 이번 참관기의 결론은 "한 도시만이라도 완전히 복음화 한다."는 목적에 부합한 성시화운동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더욱 열심을 내는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나무의 꿈을 꾸는 겨자씨처럼...

[글 강촌감리교회 김성호 목사]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친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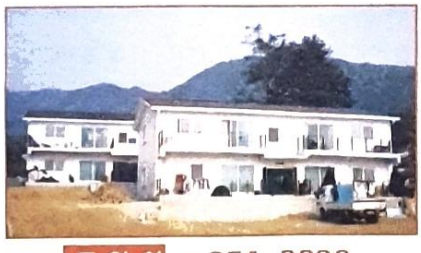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문의처 ☎ 254-0009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은 가을 아름다움의 표현이요,
계곡에서 흘러가는 물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일 것입니다.

'사랑의 집' 입주자님들이 10월 13일 Habitat 친교 단합모임에 참석하여 정감이 넘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입주자분들께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님들, 후원자, 연합회, 춘천지회 또 여러분들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외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정신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Habitat 주택, 사랑의 집은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 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계좌 : 농협(예금주: 사랑의집짓기 춘천지회) 203-01-510404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푸른성결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는 고영일 목사님(춘천목회자축구선교회-포이맨 고문, 한국기독교축구연합회 춘천지부장, 한기총 세계스포츠선교회 강원도축구선교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신앙배경과 춘천에서 목회를 하게 되신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3살 때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서부시장 언덕 위에 있던 소양성결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과 성탄절 연극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군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시골에 들어가서 집승을 키우고 싶은 막연한 마음이 생겨나 시골 생활이나 가축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이 마음 하나 가지고 시골 폐가를 한 채 사서 소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가끔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소 그만 키우고 양을 키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소 키우는 재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능덤으로 듣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학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키우던 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 되면서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길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아온 며칠 후 갑자기 이정익 목사님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찾아뵈었더니 당장 안양에 있는 성결 신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한지 올해로 18년이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성결교회나 성결교단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네요. 성결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성결교단은 외국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심을 체험한 순수한 한국인에 의해서 생긴 교단이기 때문에 그 이런 교단보다도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류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입니다. 성결교단은 한국교회와 성도가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의 회복을 위하여 사중복음을 부단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간증이나 목회중점사역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어려웠던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원만하게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개척초기에는 정말 할일이 없더라구요.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자훈련교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막상 제자훈련을 시킬 성도들이 없으니까 훈련교재를 써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림대학과 강원대에 나이가서 전도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림 마데테스", "백령 마데테스" 모임의 시작입니다. 학생들 모임과 함께 한림대 교직원 제자훈련(한림 에클레시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후에 한림대 신우회로 법인화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림대 병원에서 전도하면서 매주 오전 9시에는 환자들과 보호자, 직원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신우회 사역도 즐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주신 좋은 사역지들이었죠. 특히 한림대, 강원대 마데테스 출신 가운데는 여러 명이 목회자, 사모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잘 것 없는 종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정: 목사님께 개척초창기 목회사역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춘천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제자로서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적용이 매우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 위반하면 불행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새는 공중을 날 때, 짐승들은 땅에 기어 다닐 때 그 존재 가치가 극대화 되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 질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불행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을 거부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다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삼성제품이 망가지면 삼성에 가서 A/S를 받듯 사람이 망가지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A/S를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요 선교요 전도며 성시화입니다. 하나님께 A/S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자신의 고장난 상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으로부터 A/S를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A/S를 해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리콜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A/S를 받으며 최상의 영혼육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이고, 이것을 집단적,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일에 춘천의 모든 믿는 이들이 동참할 때 성시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시화에 대해서 그리고 성시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시화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바를 힘써 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행사위주로 성시화를 추진하는 것은 될수록 자제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일회성 행사가 되고 믿는 자들만의 잔치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성시화를 위한 부흥회를 보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집회를 하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신바람 건강강좌"를 했어요. 이것은 목사님과 불신자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시화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할 일이기에 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작년 성시포럼에서 제시되었던 은사그룹의 활성화 방안은 성시화를 위해서 참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란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쉽게 할 수 있고, 하면 재미있고, 남보다 조금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 외에 축구를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춘천지역의 목회자 축구선교 모임인 '포이맨'을 창립했습니다. 어제는 법원 축구팀과 시합을 했어요. 축구라는 접촉점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중에는 평생 목사와 악수하고 대화할 기회가 한번도 없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이맨'과 'FC 춘천'이라는 믿지 않는 청년들 축구 클럽이 매주 월요일마다 공을 차며 친밀해지니까 "교회 헌금은 다 목사님께서 가져가느냐?"부터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은사와 선한 문화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성시화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큰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른 신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의 임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분들에게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시화운동과 관련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현실은 춘천이 성시화의 고장이면서도 전국 평균 복음화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시화를 위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여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혼란은 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세요. 보수에서부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품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까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시키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방법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다면 성시화운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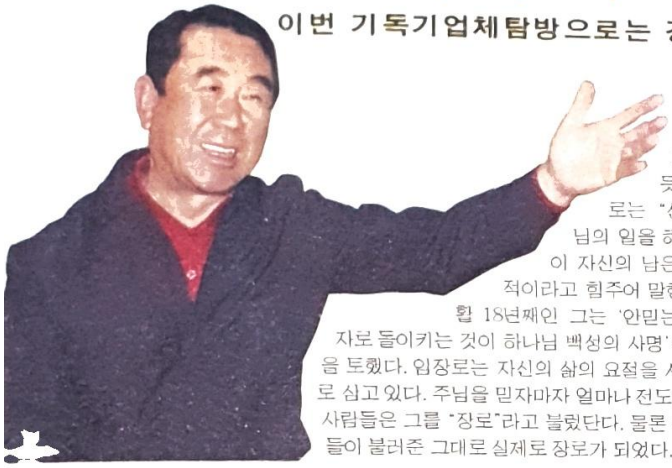


일 시 : 2005년 10월 14일
정리 : 정재호
사 진 : 김미경

삶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번 기독기업체탐방으로는 강원농원 임희방 장로(춘천동부교회) 편입니다



마치 들어봐 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임희방 장로는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는 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신앙생활 18년째인 그는 '안믿는 자를 믿는 자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임장로는 자신의 삶의 요절을 사도행전 1:8로 심고 있다. 주님을 믿자마자 얼마나 전도에 힘썼는지 사람들은 그를 "장로"라고 불렀단다.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불러준 그대로 실제로 장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임장로의 집안은 불교였다. 어머니는 절과 무당집에 다니는 분이었고, 그의 아내(김윤옥 집사) 역시 어머니와 등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한 것은 큰 누님이었다. 큰 누님은 권사요, 매형은 장로이신데 그들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동생 가정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전도할 목적을 세우고, 일년에 다섯 차례 정도 임장로의 집에 찾아와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다니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임장로 내외는 큰 누님의 눈물의 기도와 애끓는 전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막내딸이 넘어지면서 길에 쏟아져있던 염산에 데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막내딸이 사고로 다치는 일까지 일어났다. 1983년 J.C(청년회의소) 회장이 된 임장로는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픽업트럭에서 춘천에 몇 대 안되는 승용차로 바꿨다. 그 승용차에 막내딸을태우고 운행하던 중, 덜 닫혀 있던 막내딸 쪽의 좌석문이 열리면서 딸이 떨어져 30m나 차에 끌려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임장로와 아내는 5년간이나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무속인들까지 찾아다니며 회복을 위한 기원을 드렸지만 아무리 애써도 딸은 낫지 않았다. 임장로는 그 때 일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요"라고 말한다. 5년간 애쓰며 딸을 고치려 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마침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 김집사가 먼저 큰 누님의 권유도 있고 하니 교회에 나가자고 말했다. 김집사는 교회에 나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했다. 신구약 통독을 마친 후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할지 막연했다. 춘천에서 오래도록 사업을 했지만 이제껏 어느 누구도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어떤 교인도 김집사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고 붙잡는 이도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남부로터리에 서 있다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사람을 따라 J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김집사는 J교회에서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같은 구역의 어떤 성도가 아침 금식하는 모습을보고 김집사도 한 끼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한지 한달 째 되던 때에 주님의 은혜로 딸의 병이 나았다. 머리 아픈 증세가 없어졌고 그동안 식사를 잘하지 못하던 딸이 싹간 도시락을 다 먹고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로 김집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동안 집에 걸려있던 반야심경과 불자 액자를 다 떼어 불태웠다. 이 액자들은 당시 시가로도 꽤 값나가던 것들이었기에 당시는 믿음이 없던 임장로도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집사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할망정 왜 그런 액자를 주느냐고 하면서 불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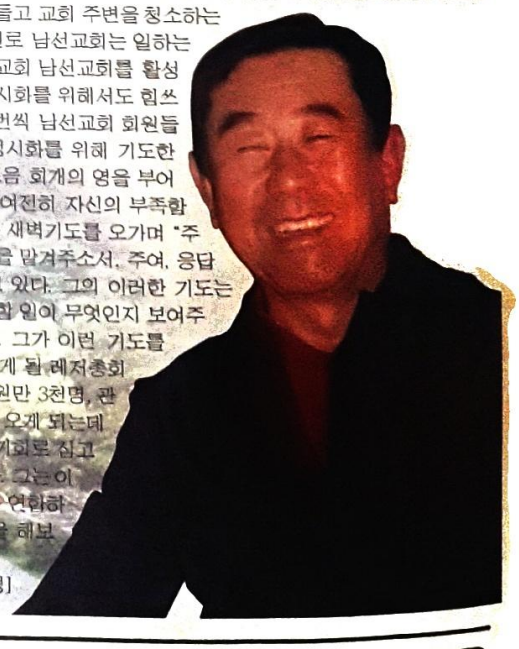
새로운 인생

딸이 나은 것을 계기로 임장로도 김집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임장로는 그동안 J.C 회장을 하면서 포카와 화투에 빠졌었다. 얼마나 빠져 있었던지 집에 들어와 저녁식사를 한 것이 일년에 다섯 번 정도로 손꼽는다고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박에서 손을 떼었다. 그러나 깊은 신앙 없이 교회에 다니던 임장로는 신앙생활 3년째에 한 간증집을 보던 중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임장로는 전도에 힘쓴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간증하며 그 사람도 새 삶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전도자의 희생 없이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전도하려는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제공하면서 전도해야 전도가 된다는 말이다. 그는 50가정 전도를 목표로 어려운 가정에 쌀 한 포대와 라면을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하여 5년간 계속한 결과 27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는구제를 통한 전도사역을 하던 중 한사랑선교회와 연결되게 된다. 한사랑선교회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역에도 눈을 뜨게 되었고, 한사랑선교회에 속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10년간 장학금으로 선교사역을 도운 임장로는이런 사역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1년 전 그는 망막이 찢어져서 꿰맸다. 그는 이 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휴식을 취하며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기도원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어 도운 결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임장로는 기도원이 활성화되면 그 기도원에 발길을 끊는다. 기도원 측에서 자신을 특별 대우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임장로는 특별대우를 받게 되면 교만하기 쉽고 자신의 섬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한다. 임장로와 김집사는 오늘도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교회중심의 사람

이렇게 교회 외의 단체를 돕는다고 그가 교회 사역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임장로는 교회 중심의 사람이다.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충실하면서 외부 선교단체도 섬기고 있다. 임장로와 김집사는 등부장로교회에 출석한다. 신앙에 불이 붙은 김집사가 주님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겼다. 오랫동안 작정기도한 후 J교회목사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고, 현재 시무하고 있는 동부교회로 이적하게 되었다. 동부교회로 온 임장로는 남선교회의 분위기를 일으키는데 힘쓴다. 남선교회를 전도중심의 선교회로 이끌고자 우선 봉지를 돌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일로 남선교회는 일하는 선교회로 바뀌었다. 동부교회 남선교회를 활성화시킨 임장로는 춘천 성시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그는 한달에 두 번씩 남선교회 회원들과 봉의산에 올라 춘천 성시화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임장로는 요즈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직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기도를 오가며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일을 맡겨주소서. 주여, 응답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의 이러한 기도는 국내 선교사로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2010년에 있게 될 레저총회 때문이다. 레저총회에 입원만 3천명, 관광객 170만 명이 춘천에 오게 되는데 이 때를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는 이 일에 춘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 힘주어 권면한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춘천점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시뉴욕
기죽·모피·예복전문
대표 전 순 천
위치 :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 252-7262

창조와 신용을 제일로 하는 조경전문건설업 면허업체
강원농원조경공사
조경설계 및 시공전문 | 조경 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제베잔디판매
✤ 정원공사, 주택, 별장, 가든 조경공사
✤ 씨드스프레이, 자연석 쌓기
✤ 각종 묘목, 생산판매 전문
✤ 제베 잔디 생산, 판매 전문
✤ 각종 관상수/조경수 전문

춘천시 근화동 266-2(강원예식장 뒤) 대표 임 희 방
☎ 254-8986 / FAX 255-8981(야간:254-5930) / H · P 011-369-1278

믿음 없는 목사

사랑하는 딸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조 영 호 목사

근래 걱정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 몇 날 새벽을 간절하게 기도 하였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형식주의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실제 매일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명 까닭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삶의 과제에서부터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오고 있는 내가 정말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이렇게 말로만 하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종교인은 아니었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늠하게 된 중대한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대다수 목회자들의 가정처럼 정말 신경을 쓰지 못하던 새 흡족 커버렸다. 성도들이 잘 자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는 없다. 그런데 셋 중에서 교회는 그럭저럭 다니고, 가장 유흥에 민감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둘째 딸 지혜가 한 일 년 전부터 신앙의 변화가 오더니 통상적 믿음에서 실제적이고 고백적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읽고, 기도에 심취하며, 가끔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언니와 같이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은혜로운 소리를 자주 하더니만 급기야 금년 5월에 직장을 그만 두겠단다. 그리고 메년 들어가서 봉사하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팀에 꼭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 34명의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방글라데시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주간을 있었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비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내렸다. 그 등안 청년들은 더 깊은 오지로 가서 3박 4일 등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모두들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났다. 장대비속에서 진흙 뻘 바닥에서 워십을 하고, 전도를 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얼마 후 둘째 녀석이 방글라데시 믈라텍 교회와 학교(교회는 어린이들이 500명 이상 모이고, 학교는 10학년까지 개설되어 있다)에 어린이 사역을 위해 헌신을 하겠단다. 순간 당황을 한 나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선교는 낭만이 아니다. 처절한 사역 현장은 생각보다 몇 십 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가관이다.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교지에서 장기 헌신이 안되면 단기로라도 섬기라고 하시면서, 왜 내가 가겠다는데 기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딸이 가겠다는 사역지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곳이기에 신변의 안전을 약속할 수 없어서 더욱 그러했다. 이때 내 마음을 치는 생각은 부끄러움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뜻있게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안쓰러워하던 마음을 회개하며, 마음껏 축복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데도 정서적으로는 편치 않은 것이다. 그곳은 척박하기도 하지만 현지 선교사가 순교의 위기를 겪고 주일 예배 때 끌려 나가 공항에서 2일이나 감금 되었다가, 슬리퍼 하나신고 소지품도 항공권도 없이 인도네시아 공항으로 추방되어 온지 2년이 넘은 그곳을 가다니, 이런 생각에 마음이 썩 편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셋 중에 하나, 그것도 위험은 있지만 당장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주님의 종으로써 내 딸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이론과 현장이 만날 때 위선적이 될 수 있는가를 경험하며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딸은 1년 2개월 비자를 받고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 비행기로 떠났다. 우리 부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다시 고백했다. 다음 날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다. 그런데 전화를 받다가 "안전하게 잘 지내거라 기도하마." 하곤 그만 말이 안 나왔다. 마음이 아릿하며 이상해지는 것이다. 그때 "전화 끊어 졌나... 왜 통화가 안 되지..." 하며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나는 진리를 내 것인 양 다 말하고 전하지만 작은 것 조차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목사라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전심히 구하게 된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을 이부르는 소리

바람은 불어도 가을은 그 자리에 있다.
늦은 비 내리고, 살 어름 얼어도
가을은 아직 나뭇가지에 있다.
모두 피곤에 지쳐 사는데도
단풍은 들고, 열매는 익어 간다.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가을을 보라.
저 산 아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라.

사람아 아직 자리에 있는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인가? 언제인가?
이제 가을 들판으로 나가자.
이제 가을 산을 바라보자.
유리굴로가 오기 전에
미향에 배를 대고 가을걷이를 하자.
그냥 들 수 없기에, 혼자 볼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사람을 모은다.

저 오대산 소금강에서 중국 천산을 넘어서
아직도 가을의 꿈을 꾸지 못한
사막과 광야 양을 쫓고,
모래 언덕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안겨주자.

다시 방황치 않도록
아곱의 우물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아! 가을은 내 작은 가슴에,
내 작은 믿음에 불을 지른다.
가을 잊은 사람들,
계절을 망각한 사막의 모래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눈을 뜨라 하늘로부터 오는 가을을 보라.
우리는 오늘도 가을을 뿌리며
영원으로부터 오는 추수가를 기다린다.

-2005년 10월 23일 추일 아침에 조 영 호-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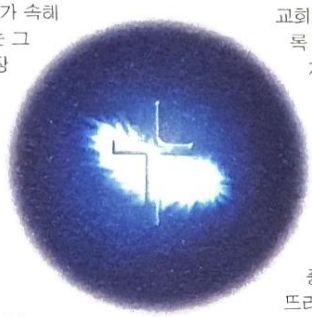
참사랑 내과의원
내과 · 소아과
▶ 비만 크리닉
▶ 노화방지 크리닉
▶ 갱년기 크리닉
확장 이전
내과전문의 원장 정 형 만 ☎ 263-7560

아름다운 땅 춘천,
복음으로 정복하라!!!

교회는 그 지역의 영혼구원의 방주이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닌 그가 속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지역의 영적 흑암과 죄악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교회는 지금까지 개인구원이나 가족구원에 많은 정열을 쏟거나, 조금 더 나아가 사회적인 제도를 개정하고 교육하는 일 정도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상 그 땅에 대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정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

예수님도 나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세상 정세와 권세를 가진 흑암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소중한 도구다.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종신토록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게 하며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할 고난의 장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과 자비로써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 대한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땅을 구속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원래 창조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를 터전으로 바꾸는 역사가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춘천을 향한 헌신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한 지역에 대한 영적인 소유권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자.

아담 이후에 인간의 제도와 통치력을 빙자하며 대적들은 더 강력한 힘에 의해 제압당할 때까지 합법적인 영적 소유권을 가지고 악한 역사를 행해왔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권위를 통해 대적을 정복하며 통치할 힘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제 그 지역의 영적 소유권을 믿음으로 다시 획득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절차이며 이는 또 다른 면의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영적 소유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주님은 도시들을 인격으로 대하시며 벳세다가 회개하고 에루살렘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 광야에 꽃처럼 생명의 도시로 피어나길 소망하셨다.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마땅히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던 세력을 물리치며 땅을 정복해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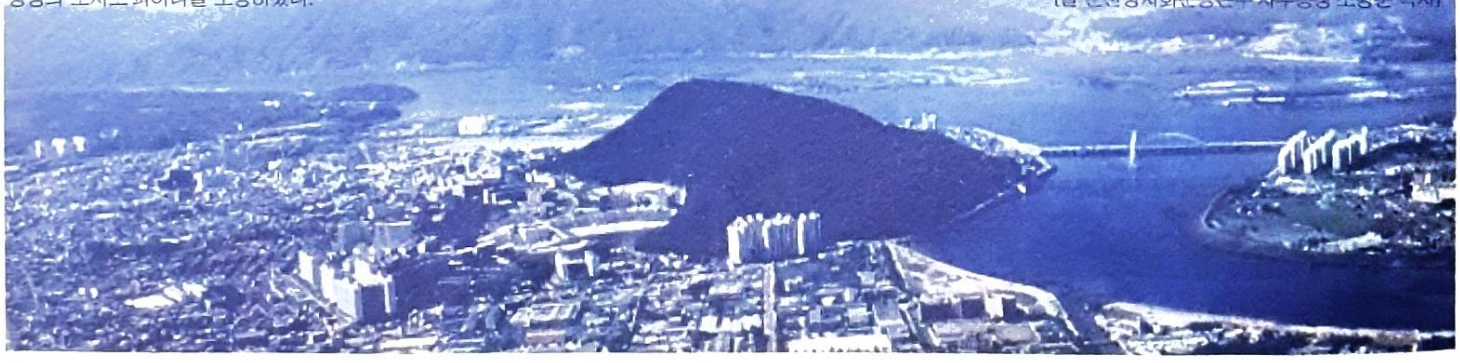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에도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같은 지역을 지배하는 다양한 세력권들이 형성되어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치 · 경제 · 문화 · 교육 그리고 청소년과 스포츠 · 지역 · 풍토 등이다. 이런 장벽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견고한 대적의 진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헌신하셨다.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그 지역과 사회를 섬기겠다는 전적인 헌신이다. 이 아름다운 땅 춘천은 하나님이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유업이다. 당신의 분깃은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바쁨은 고린도교회에게 권면하셨다. 이와 유사한 권면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주셨다. 이를 힘써 행하여야 한다.

이 춘천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라, 이 산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성전으로 변화시켜라, 하나가 되라, 강하라 담대하라!!

오늘도 조용히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운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 마땅히 지도자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춘천이 주님의 손에 면류관처럼 빛나게 드려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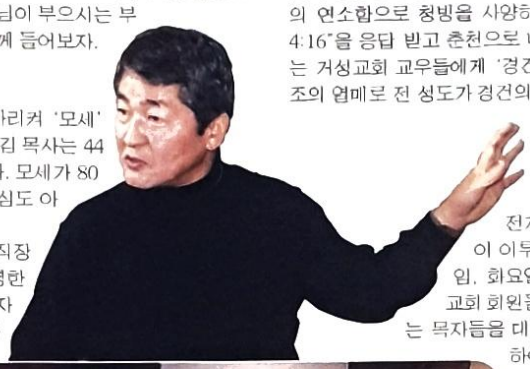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처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DTP 디티피아
- 일 체 : 명함,스티커,전단,브로셔,카다로그,각종봉투,서식,기타
- 판 촉 : 현수막,간판,X-배너,POP,각종현수막,현수막거치대,기타
- 현수막 : 각종현수막,실사현수막
"주님만이 내일 일이고 전부도 될 것입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담은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거성교회(김수복 목사)편입니다

거성교회는 1984년 8월에 창립된 교회로, 온 교회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됩시다'라는 모토로 사역하는 건실한 교회이다. 최근 동면 만천리에 새로 교회를 신축하고, 주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성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김수복 목사와 목회에의 부르심

누군가 거성교회를 섬기는 김수복 목사의 생애를 가리켜 '모세'의 생애와 닮았다고 넌지시 귀띔한다. 아닌 게 아니라 김 목사는 4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모세가 80세에 공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비교하면 늦은 부르심도 아니지만 평범한 부르심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김 목사는 모세가 그러하듯 젊은 시절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보험사로 유명한 서울 K생명 지점장을 지내며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까지의 이야기는 결코 짧지 않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1977년. 불신자였던 김 목사가 지금의 백근연 사모와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압(?)에 의해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 당시 김 목사는 해군에 입대하여 대위로 복무하고 있을 때였다. 백 사모의 가계는 득실한 장로교 집안. 중매로 만나 뜨거운 연애 뒤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김 목사는 세례증서를 요구하는 처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시 침례교 군종 목사와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그것이 김 목사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이유였다. 군 제대 후 서울로 올라와 15년 가까이 보험사에 몸담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인으로, 교회의 일군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 적이 없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그가 1994년 서울 은누리교회에서 열린 '경건의 시간(QT) 세미나'에서 강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는 지금도 감동적으로 그 때를 기억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12:1,2)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 넘어 김 목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온다. 온 몸에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력한 기운을 느끼며, 김 목사는 엎드러졌다. 그 후 김 목사는 전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과감히 직장에 사표를 내고 침례교신학대학교(M.Div)에 입학하게 된다.

대전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몸담고 있었던 대전 새누리교회 김등명 목사와의 만남도 큰 추억거리다. 김등명 목사는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안이숙 사모의 남편. 김수복 목사는 신학생으로 이제 막 시작한 새누리교회의 개척을 돕게 된다. 그가 기억하는 김등명 목사는 침착한 '평신도 목자화' 사역의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탕자"에 관한 강의는 명 강의로 지금도 김 목사의 사역에 중요한 가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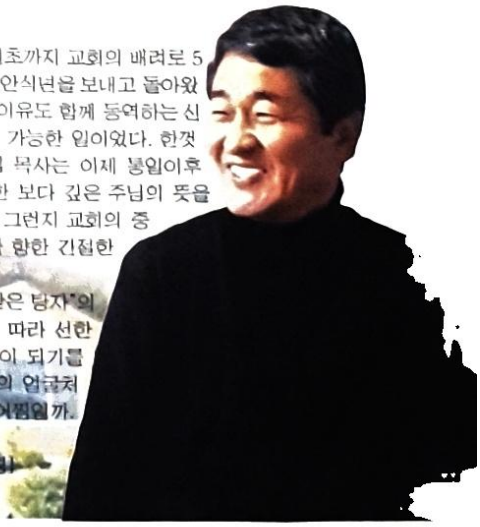
거성교회로의 부르심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배우고, 아울러 신학을 공부한 이후로 김 목사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춘천 거성교회로 청빙을 받을 때도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왔다고 그는 고백한다. 처음엔 김 목사가 목회경험의 연소함으로 청빙을 사양하였지만 기도원에서의 집중 기도와 말씀을 통해 "딤후 4:16"을 응답 받고 춘천으로 내려오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김 목사는 거성교회 교우들에게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러한 강조의 열매로 전 성도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큼은 하루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김 목사는 자랑한다.

거성교회의 교육과 사역

거성교회는 한 주간 동안 매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전개된다. 주일에는 세 가족들을 중심으로 「신앙핵심훈련」이 이루어지고, 월요일에는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한 교제모임, 화요일에는 전도특공대원을 중심으로 전도동력세미나, 남선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세미나, 수요일에는 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약강해, 목요일에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단적으로 실시하는 성서신학원 공부에 참여하도록 제직들을 독려한다. 금요일에는 금요철야와 토요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거성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 남아있는 이유도 건강한 제자훈련의 영향이 크다.

거성교회의 자랑중의 하나는 어린이 사역이다. 김 목사는 복음한국의 미래는 어린이들에 달렸다고 힘주어 말한다. 5년 전부터 시작된 교회 내의 CMS 크리스천 방과후 프로그램사역은 이혜숙 선생을 중심으로 여러 교사들이 참여하여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습, 피아노, 종이접기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변의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은행 차량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기도를 받고, 하루일과를 마치는 순간까지 7번 기도를 목회자와 교사들로부터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할 수 없다고 김 목사는 간증한다. 거성교회는 그밖에 선교에도 힘을 써 1국의 권력잔 파송 선교사를 비롯하여, 15개국의 선교사들을 직,간접으로 후원하며, 한국 청소년선교회를 비롯하여 10개 교회, 선교단체와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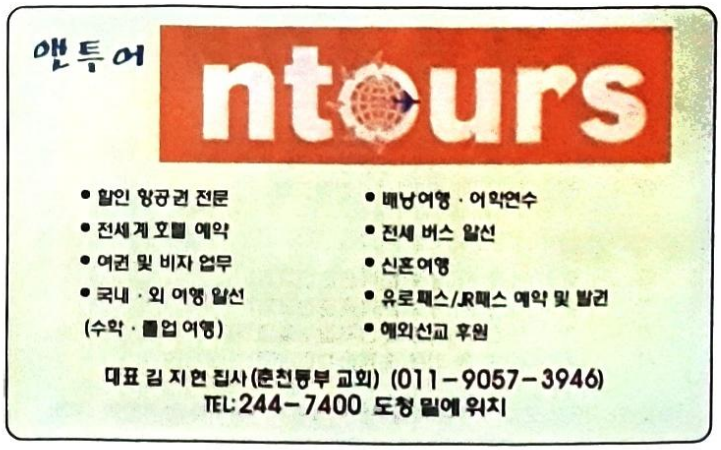


김수복 목사는 지난 4월부터 9월초까지 교회의 배려로 5개월간 미국 하와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왔다. 교회를 이렇게 비울 수 있었던 이유도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교우들과 동역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껏 성령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온 김 목사는 이제 봉일이후 시대를 내다보며 북한 선교에 관한 보다 깊은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중요한 기도제목 가운데 북방선교를 향한 간절한 기도제목이 돋보인다.

평생을 누가복음 15장의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를 키우는 일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김 목사에게서 큰 바위의 얼굴처럼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 보임은 어쩜일까. 가까이 거성교회를 축복하고 싶다.

(취재 최상도, 사진 권미정)





탐방 II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은 보호자가 사랑으로 돌봐줄 때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웃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아이들과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정동환)는 2000년 7월 개정아동복지법 발효 이후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 승인받아 2000년 10월 개소한 이래 강원도내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 1391을 운영하며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등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석사동에서 지난 7월 후평동(685-5번지)으로 이전한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는(520평) 2층은 사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모래놀이치료실, 보건실, 개별상담실, 부모상담실, 부모교육실, 관찰실, 진술녹화실, 심리검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는 강당, 아동교육실, 홍보관, 자원봉사자실, 자료실, 4-5층은 공동생활가정이 생활하고 있다.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긴급전화 1391을 통해 신고접수하며,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상담 · 치료 사업
- 응급치료를 비롯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의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 일시보호사업
- 피학대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그룹홈에서 긴급분리하여 일시보호하고 있다.

○ 예방 · 교육 사업
- 부모교육 : "적극적인 부모역할 훈련(APT)",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등 프로그램
- 아동교육 : "아릇한 느낌", "비밀친구, 1391" 프로그램, 인형극 "은비의 파란마음" 공연
- 신고의무자(교사 · 의료인 · 관련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교육 : 세미나, 워크샵, 사례발표회 실시

○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13개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가정폭력협의체 구성, 자원봉사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홍보 · 출판 사업
- 캠페인 전개, 교육자료집 · 사례집 발간, 홍보물 제작 · 배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 후원사업
- 피학대아동 및 가정을 위한 의료 ·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 후원계좌 : 조흥은행 719-01-017239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2) 아동학대사례현황 (강원도전체)

2000년10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본센터)	2005년9월현재 (본센터)
25	107	123	194	268 (200)	352 (132)

[글.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 1391, 257-4061~4 FAX 257-4067 /www.1391.org]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창세기 1 : 26-28



원 종 국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이자를 창조하시고(창1:27)"

한 정숙한 시각장애인인 소녀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 소녀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남자는 그 소녀를 위로하며 왜 그러느냐고 물습니다. 그 때 그 소녀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한번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관심입니다.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사랑하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나와 당신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외형의 모습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은 것은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불행하게도 죄 범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 23).

그러나 여기 세 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식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데도 그렇습니다(요일서 4:8). 거룩한 삶을 살고자하는데 그렇습니다(살전 4:3). 의롭게 살고자하는데 그렇습니다(마 5:48). 공정한데 그렇습니다(딤후 4:8). 진실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시 33:4).

오늘 사랑하는 당신에게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 로 연 합 회

◆ **신 임원**

회	장	박 한 병 장로(중앙성결교회)
수석부회장		김 태 권 장로(동부장로교회)
총	무	김 기 기 장로(석사감리교회)

◆ **구 임원**

회	장	임 운 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총	무	김 용 헌 장로(순복음춘천교회)
회	계	전 은 동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서	기	김 봉 옥 장로(순복음제일교회)

10월 28일(금)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장 로 교 연 합 회

춘천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부흥 성회

♣일시 : 2005년 10월 30(주일)~11월 1일(화) 오후 7시
♣장소 : 춘천제일장로교회(성수고 옆)
♣강사 : 박 형 진 목사(안산권능교회 당회장)

장로교연합회2005 정기총회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 화목교회 (문충식 목사) / 만천리 골프연습장 뒤

변사에 감사

결혼 14주년 회상기

1. 나의 결혼식 때에 생긴 일

나귀 될 사람의 사정으로 선을 본 지 두 달 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나귀 될 사람은 총각으로 복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에 교인들과 약속하기를 1년 안에 결혼을 하겠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귀 될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시댁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시댁 식구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놓은 자식으로 여기고 있던 차라 우리 결혼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결혼 준비를 혼자 거의 다 마련해주셨지만, 저의 패물만은 시댁에서 해주리라, 설마 반지 정도는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끝내 반지 하나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그 때 남편 될 사람은 단돈 15만원을 가지고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교회 교인한테서 빌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 남편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다 하쳐서 5만원이었습니다. 반지 하나 끼지 못한 채 결혼식을 치르고 한복으로 갈아입으니, 목과 손가락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 때,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자 청년 하나가 찾아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 자수정 목걸이를 집어내어 내 목에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척 황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적잖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그 목걸이 하나로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표시하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니, 신혼여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기가 무섭게, 우리는 00교회(그 당시 남편의 담임교회)로 직행하아만 했던 것입니다. 남편 될 사람은 그냥 일반버스를 타고 가자는 것을, 내가 우겨서 겨우 택시를 대절하여 신혼여행 삼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택시비가 남편의 한달 생활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혼여행을 버스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결혼식은 이처럼 황당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되는 나에게 결혼 5주년 되는 해에는 꼭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2. 결혼 5주년에 생긴 일

어느새 결혼한 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사리 조립식 건물로 예배당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제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멀리 여행을 간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만원의 돈을 내놓으며 온천이라도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다 모여라'해서, 함께 사는 식구가 7-8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식사준비를 부지런히 해놓고서는 오후에나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결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소풍을 간다면서 금일봉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섬 망설이다가 몇 만원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자, 동네 사는 아기엄마가 얼이 펄펄 나는 아이를 업고 왔습니다. 기도를 해주었으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만 할 것 같아서 그 아이엄마에게 몇 만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은 겨우 몇 천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간 돈이 꼭 아까운 것만은 아니지만, 어쩐지 마음이 섭섭하고 우울했습니다. 내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차비와 입장료 등을 계산해보니, 그래도 캔 음료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란 두 알을 삶아 겉옷주머니에 넣고서는 내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라도 잘못 탈 경우에는 어찌려고, 우리는 당당히 캔 음료 한 개를 샀습니다. 남편이 벗겨준 계란을 꾸역꾸역 먹고 음료수도 마셨습니다. 한 모금만 더 마시라고 자꾸 재촉하는 남편을 바라보자니까,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있던 내 마음은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다시금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10주년에는 꼭 제주도 가자!"고 하면서 강제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3. 결혼 10주년에 생긴 일

세월은 흐르서, 어느덧 결혼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속아 사는 것이 인생이라더니, 이젠 떱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경제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약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아예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제천의 어느 아는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가 용돈을 듬뿍 주면서 '여행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제주도에 꼭 갔다 오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제주도로여행을 기게 되었습니다. 숙소는 하얏트호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호텔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해바다가 한 눈에 다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곳에서, 2박 3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바닷가 모래사장도 거닐고, 고급스런 뷔페식당에서 저녁식사도 했습니다(물론, 이런 모든 것은 여행권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바다처럼 넓은 사랑과 깊은 마음, 그리고 돌을 던지거나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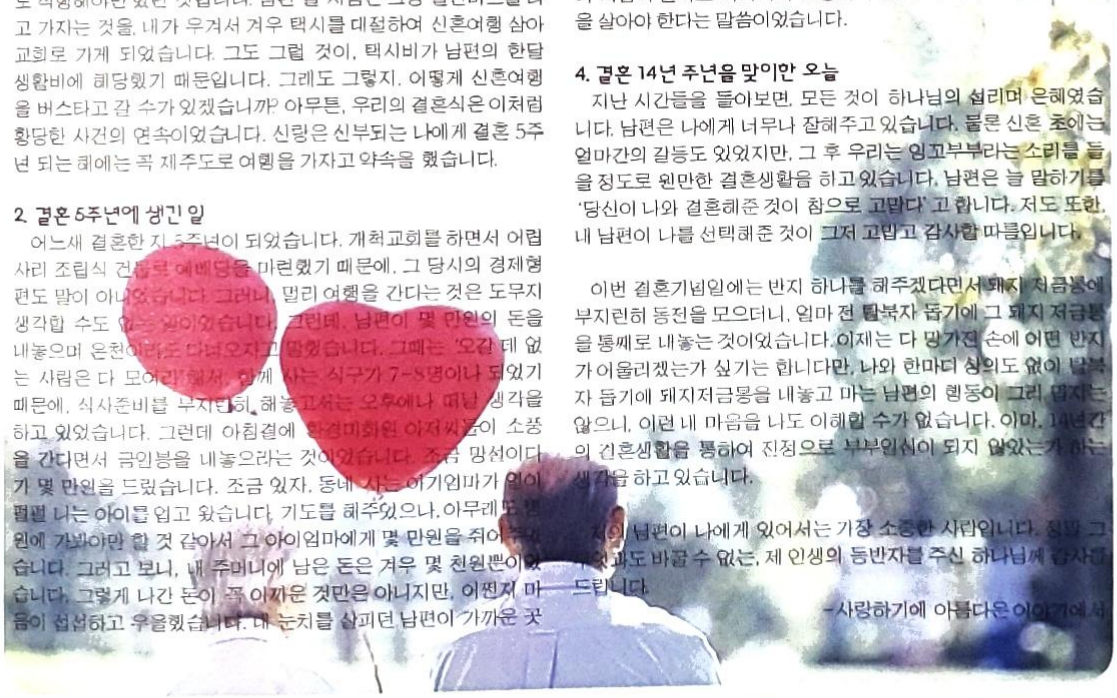
4. 결혼 14년 주년을 맞이한 오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은혜였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혼 초에는 얼마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 후 우리는 잉꼬부부라는 소리를 들을정도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늘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 것이 참으로 고맙다' 고 합니다. 저도 또한, 내 남편이 나를 선택해준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반지 하나를 해주겠다면서 왜지 저금통에 부지런히 동전을 모으더니, 일마 전 탈북자 돕기에 그 돼지 저금통을 통째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망가진 손에 어떤 반지가 어울리겠는가 싶기는 합니다만,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탈북자 돕기에 돼지저금통을 내놓고 마는 남편의 행동이 그리 맘자는 않으니, 이런 내 마음을 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 1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부부일심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llegible]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실 그 [illegible]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동반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성시콤

〈김 춘 배〉









예 향

독립운동가 윤치호 선생



청년 윤치호가 1882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뒤져보니 남은 돈이 모두 200달러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가족들 선물을 샀을 텐데, 그는 그 돈을 미국 남감리교회에 보내면서 한국에 선교사가 없으니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200불이 선교의 자극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한국을 선교하자는 운동이 있게 되고, 드디어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 장로교와 감리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생겼습니다. 배화여학당과 배재학당이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장로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김선도,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교경연합회총회 / 교역자연합회총회

일 시 : 11월 23일(수) 오전 11시
장 소 : 경찰서 소예배실
회 장 : 최현묵 목사

일 시 : 11월 3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남춘천침례교회
회 장 : 김유식 목사

특별건강세미나

CBS TV건강클러스 출연: 매주 월 오전 7:40, 오후 2:30, 새벽 02:00

송 기 택 목사 (한국 전인치유선교 원장, 대체의학 46년)

▶ 통증치료(시범): 디스크, 요통, 견비통 등, 모든 통증, 각종 장부질환
▶ 귀세미나 : 귀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 대체의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춘천 월드비전 3층 강당
· 주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문의 : 033)256-1260

/ 포 / 토 / 에 / 세 / 이 /



오래된 집

먼 곳에서도 가까워 보이는
한참 걸어도 제 자리에 있는

눈 감으면 더욱 또렷이 보이고
뜨면 어느새 사라지는
고향 언덕 위 내 집엔
망각의 언어가 살고 있다

수 대에 걸쳐 눈을 뜨고
눈 뜨면 하나씩 떨쳐 버리는 집

집은 멀리 있어도
내 손에 잡힐 듯 서성이고

닮은 언어의 빛깔들이 찾아와
문 열 때
한꺼번에 그리움 토해내는
오래된 집.

시. 김 홍 주

(시인, 효자감리교회 권사, 민예총 춘천지부장, 성수고 교사
시집으로 '시인의 바늘' 외 동시집 다수)

시민의소리

혁신도시 춘천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강원도 수부(首府)도시인 춘천시는 예부터 딱국의 도읍지로 물 맑고 깨끗한 지역행정의 중심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도시를 만들자는 성시화운동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동서로는 인제군과 가평군, 남북으로는 양구, 화천, 홍천군과 연접한 국토중부 내륙에 위치함으로서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국가발전 한 축으로 마땅히 개발 · 지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는 서울 · 경기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각종 경제활동 및 도시발전에 불이익과 외면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못하는 원주가 기업도시로 선정되고, 강릉과 속초가 천혜의 관광 예술도시로서 장족의 발전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양보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혁신도시 선정마저도 춘천시가 소외되며 기존의 혜택을 받은 지역으로 경쟁적 유치활동이 전개된다는것은 미래의 강원발전을 위해 대단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심중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춘천권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은 강원도의 도청소재지로 서울과 인접하고, 4통 8달의 고속접근망 확충계획 추진으로 교통접근성이 양호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행 · 재정적 지원이 용이합니다.

둘째, 맑은 물, 푸른 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호반도시로 13개 공공기관의 연구단지 조성 및 교육, 훈련, 연수활동의 최적지입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 · 예술 · 체육 도시로 친환경적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따라 21세기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혁신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개발이 수월합니다.

넷째, 장래 통일한국으로의 행정 중심이 될 지정학적 요충지로 남북강원도 및 통일대비 혁신 개발과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생명기능단지, 헬벵주거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 등 강원북부 권역의 혁신거점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까닭에 이느 도시보다도 적절한 입지 조건을 갖춘 춘천시가 강원도 지식기반형 혁신도시 선정에 우선되어야겠으며 선정과정에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단코 힘 있는 원부지역 인사가 선정과정을 좌우하거나, 왜곡되고 굴절된 지역패권주의가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께뜨림 뿐만 아니라 장래 통일한국에서의 행정적 중심이 될 지정학적 요충지를 잃고, 나아가 현재의 행정중심지까지 빼앗아 가려는 중차대한 음모라 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인사의 몰지각한 개입은 지역 이기주의적 탐욕적 행위로 통탄함을 느끼며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선정 과정이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평가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춘천시가 21세기 지식기반형 혁신도시로 선정되기를 춘천권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목사, 성도들은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춘천권 기독교연합회 교회외 목사, 성도 일동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

♣ 아이사랑, 강원사랑 "11월의 어린이 날"
1.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11:00 ~ 22:00
2. 장 소 : 강원웨딩문화센터
3. 주 최 :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4. 주 관 : 아이사랑지킴이단
5. 후 원 : 강원웨딩문화센터, 명가출장부페
6. 내 용 : 점심 식사 및 음료
7. 문 의 : (033) 1391

▣ 월드비전 ▣

♣ 어린이합창단 공연관람
1. 일 시 : 2005년 11월 5일(토) 15:30분
2.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3. 예상인원 : 합창단원 25명
4. 주요내용 : 카운트테너 이동규와 함께하는 메모리

♣ 아동방과후교실 야외활동
1.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2. 장 소 : 강촌
3. 예상인원 : 아동 30명
4. 주요내용 : 강촌 기차여행

♣ 아동권리캠페인
1. 일 시 : 2005년 11월 19일 15:30~17:30
2. 장 소 : 춘천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3. 예상인원 : 지역주민 500여명
4. 주 관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강원도장애인복지관 월드비전동해복지관

♣ 청소년 만남의 광장(안동테마여행)
1. 일 시 : 2005년 11월 19일(토), 14시
2. 장 소 : 안동지역
3. 참석예상인원 : 청소년 20명
4. 주요내용 : 안동지역의 안동대학, 안동댐,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의 유적지 여행

♣ 청소년멘토링프로그램(제2기 사랑의 멘토)
1.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26일(토)
2. 장 소 : 지앙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예정)
3. 참석예상인원 : 멘토 12명(결손가정청소년), 멘티 12명(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인솔자 3명, 총 27명
4. 주요내용 : 3월부터 시작한 멘토링 활동을 되돌아보고 학생들이 속한 가정 ·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

사랑에 빚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 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과
기쁨을 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종 합

♡한민족 '열린 포럼'



10월 5일(수) 오전 10시 카페 크리스챤에서는 한민족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한민족 열린 포럼"이 열렸다. 먼저 주 발표자인 김형석 회장(역사학 박사,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은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허문영 박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몽양선교대학 학장)는 북핵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조인형(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는 역사의 흐름에서 본 민족통일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진지하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



10월 8일(토) 오후 6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춘천선교대회의 일환으로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주관 원드비전)"가 열려 춘천의 12개 교회의 성가대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찬양축제를 벌였다.

♡제1회 가나안농군학교 세계대회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10월 20일(목) 오후 6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해외 가나안농군학교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단동 등 해외농군학교의 보고와 가나안농군학교(교장 김범일 총재)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는 인도, 팔레스타인 요르단,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말라위, 말레이시아의 진행보고가 있었다.

♡인도 경제협력단 방문



10월 19일(수) 인도 비하르주의 이영길 선교사는 해외협력평의회, 에이엔대학 학장 등 인도시찰단 5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원주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23일(화) 춘천을 방문해 춘천시하수종말처리장, 하이테크벤처타운 등을 견학하고, 부종수 시장과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또 27일(목) 원드비전을 견학한 후, 비하르선교협의회 회장 김종호 목사와 경제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아대책본부 춘천지부 준비위원회



기아대책본부는 10월 27일(목) 오전 11시 제일감리교회에서 춘천지부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제일감리교회 원종국 목사가 회장(이사장)을, 동춘천감리교회 유호선 목사가 총무를 맡게 되었다. 11월 30일(수)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기아대책본부 춘천지부 창립예배를 드리게 된다.

♡ 춘천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



"춘천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가 시민 · 종교 ·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한 춘천범종교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유진형 목사) 주관으로 10월 28일(월) 오후 7시 춘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류종수 춘천시장과 종교계 지도자들, 함종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시와 시의회 관계자와 혁신도시 유치위원 등 약 6천여 명의 춘천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종합운동장에서 궐기대회를 가진 후, 도청까지 촛불시가행진을 벌였다.

♡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춘천방문 & 춘천성시화를 위한 특별 1일 성회



10월 28일(금) CCC총재 김준곤 목사와 서울홀리클럽 전용태, 양인평 장로를 비롯한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관련 인사들 약 60여명이 춘천을 방문하였다. 오전 12시 유종수 춘천시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등 춘천의 인사와 함께 만찬을 나눈 후, 춘천 에니메이션 박물관 견학하였다. 그리고 오후 3시 장로연합회 정기총회와 오후 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린 "춘천성시화를 위한 특별 1일 성회"에 참석하여 김준곤 목사가 말씀을, 전용태 장로는 간증을, 그리고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김주환 목사는 드려진 헌금 전액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영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 춘천장로교연합 부흥성회



춘천장로교연합회는 10월 31일(주일)-11월 1일(화) 오후 7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춘천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다. 강사 박원진 목사(안산권능교회 당회장)는 3일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눅15-25)", "고난 중에 받은 큰 축복(왕하4:1-7)", "복 있는 사람(시1:1-6)"을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 제1기 춘천어머니학교 수료식, 제4기 춘천아버지학교 개강

10월 22일(토) 오후 5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는 춘천 제4기 아버지학교가 개강하여 11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린 제1기 어머니학교에서는 약 140여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다.

♡카페 크리스챤 준비위원회



10월 15일(토) 낮 12시 카페 크리스챤 발기위원회는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실장에는 조영춘 목사, 운영회칙 작성위원회는 김성호 목사와 이병철 목사, 이학규 장로가 선출되었다.

♡ 국제기드온협회 제9지구대회



10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춘천관광호텔 연회장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캠프가 함께한 가운데 '제9지구(주관 춘천캠프, 회장 심인섭)대회'가 열렸다. 기드온협회는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이름으로 기독실업인, 전문직업인들이 모인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이다.

♡ 춘천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지도자 간담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10월 22일(토) 춘천세종호텔에서 류종수 춘천시장, 허천 국회의원, 혁신도시 대책위원회, 춘천종교계 지도자들, 평신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 춘천의 미래가 달려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통해 10월 24일(월)오후 6시 종합운동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 원로목사와 교계지도자위로회



10월 22일(토)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홍부자집에서 춘천의 원로목사와 교계지도자들을 초대하여 위로잔치를 벌였다. 이날 임영일(춘천침례교회)안수집사가 기른 거위를 기증하였다.

♡ 장로연합회 제19차 정기총회



장로연합회는 10월 25일(금)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히 CCC총재 김준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서울홀리클럽 양인평, 전용태 장로가 축사를 통해 평신도지도자들이 춘천의 성시화에 앞장서기를 당부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는 박한봉 장로(중앙성결교회), 수석부회장에는 김태권 장로(동부교회)가 선출되었다.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10월 29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춘천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stop 아동학대, start 이이시랑"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강원지역
목적이 이끄는 40일
무료 공개 세미나
◆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오후 1~5시
◆ 장 소 : 춘일감리교회 (현진에버빌1차 옆)
◆ 주 최 : 국제제자훈련원(대표 김명호 목사)
◆ 강 사 :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 문 의 : 이병철 목사 ☎256-3927 / 017-254-3162

2006년도 재직 임명을 위한
평신도 영성 수련성회
◆ 일 시 : 2005년 11월 13일(주일)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춘천은혜장로교회(공지천 골프연습장 뒤)
◆ 주 최 : 강원노회 춘천시찰(합 · 정)
◆ 강 사 : 송 태 권 목사(서울 제일교회 당회장)
◆ 문 의 : 은평교회 최승호 목사 010-8782-8750

사 설



감사(感謝)할 줄 아십니까?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금년 한 해를 거의 다 보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피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 또는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웃과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불행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갖 자구책들을 마련함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불행, 실패, 질병, 고난, 그리고 행복, 성공, 건강,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된다.

어느 교회의 한 청년이 관절염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었다. 쑤시고 아픈 통증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몹시 괴로워했다. 이 청년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담임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었는데 본 교회 부흥집회를 하는 동안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 평소에 쑤시고 아프던 통증이 사라졌다. 담임목사님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다음 주일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질 않았다. 다음날 청년을 찾아가서 사연을 물었더니 너무 오래간만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 도봉산에 등산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상당히 황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보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시신문 편집장의 직임을 맡았지만 실제로 내가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교통정리만 했다. 편집부원들과 글을 주신 분들의 수고가 컸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다. 이달은 감사절이 있는 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감사꺼리를 찾아 감사함으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춘천 성시화의 길을 달리자.

❀ 알려드려요

◆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11월 5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2) '예스 컴 프레이즈(Yes Came Praise)'
일시: 11월 19일(토) 오후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부모님 초청 전도 집회'
일시: 11월 12일(토) 오후 7시 장소: CCC 아카데미 센터

2) '순예술제'
일시: 11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 CCC 아카데미 센터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일시: 10월 5일~11월 3일 중보기도책자 권당 2,000원
단체 구입시 홍보용 동영상CD(5분)를 드림
문의: 252-1128

3) 선교전체 연합모임
일시: 11월 16일(수) 장소, 시간: 미정
문의: 252-1128

◆ JDM

1) '1일 찻집'
일시: 11월 19일(토) 장소, 시간: 미정

2) '대학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대학별로 정기 예배
월-금 오전 8시 큐티 모임, 오후 6시 기도모임
각 소그룹별로 정한 시간에 소그룹 성경공부.
문의: 252-3192 / 011-9068-3192

◆ IVF

1) 'CTT 추가교육'
일시: 11월 24일(목)~25일(금) 장소: 리더십센터
대상: 간사(전국) 문의: 252-5200

2) '캠퍼스별 모임안내'
강원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한제남 간사
011-367-9120 조천일 협동학사
한림대 : 매주 화,목 오후6:30분(문의:이용훈 간사
016-444-7406) 김광민 협동학사
교육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양창모 간사
성심,기능대 : 매주 화,목 오후6:30분 (문의: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양창모 간사

◆ 어린이전도협회

1) 'TCE 교사대학 2단계'
일시: 11월 22일(화)~30일(수)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대상: TCE 교사대학 1단계 수료자, 선착순 20명
마감: 11월 14일(등록금 8만원)

2) '새소식반 종강'
일시: 11월 21일(월)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net/ceich]

◆ GBT

1) 'GBT 전체 헌신예배'
일시: 11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남서울교회
말씀: 이희 목사(남서울교회)

2) '세계 위클리프 기도의 날 & 춘천지부 퀴트릿'
일시: 11월 11일(금)~12일(토)
장소: 서울 삼광교회
진행: 권성천 선교사, 김형준 선교사

3) 'GBT 춘천지부 설립 1주년 위클리프스쿨 특강'
강의: 박민하 선교사(PNG 리히르 종족)
일시: 11월 28일(월) 오후 7시
장소: 에덴교회 (팝호광장 부근)

4) '25회 캠프 위클리프(구니텐)'
일시: 2006년 1월 9일~26일
장소: 대전침례신학교
비용: 60만원
대상: 선교헌신자 및 헌신자
내용: 언어훈련, 선교사 기본훈련, 분문체험, 현지적응훈련, 인터뷰 등
신청: 11월 중순까지 http://www.gbt.or.kr 또는 GBT춘천지부
문의: 252-3927,011-367-6008) 김대원 간사 33@gbt.or.kr

◆ 목회자 산상기도회

일시: 매월 1일 오후 11시/매주 토요일 오후 9시30분
장소: 대룡산기도원 버스 종점에서 집합)
문의: 010-3191-8750 최승호 목사(춘천은평교회)

◆ 2005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11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문의: 256-1260

◆ "성결교 100주년 성결인대회"
일시 : 11월 7일(월)~9일(수) 새벽 05:00, 오전 10:30, 오후 7:30
장소 : 7일부터 9일 오전예배까지 소양성결교회 9일 오후 예배 중앙성결교회
강사 : 김등성 목사(새능력교회), 김성호 목사(성광교회), 김창배 목사(영광교회)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원의장로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교회	일신교회	주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강원농원	현일현수막
베비트 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엔루어
유림닭갈비	토인테라피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협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협	안 미 애	안 정 숙
엄 림 남	오 홍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범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 2005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 춘천제일장로교회(성수고 옆)

지난 1년 동안 기독교연합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주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이루기 위한 정기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유 진 형 목사